

총림대 총장 졸업식사

용맹정진 정신 살려 역경 돌파

동국대 송석구 총장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지난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곤경(困境)과 과도기(過渡期)가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역사가 발전한다는 반증(反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곤경으로부터 탈출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하는 길과 개척해 나가는 길이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피하는 길은 우선은 보다 쉬운 길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곤경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혹하다 해도 우리가 영위해야 할 유일한 삶의 공간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길뿐입니다. 이를 위해 온거(勵精)의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면의 세계로 침잠하여 사색(思索)과 명상(冥想)함으로써 자신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곤경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는 진정한 인간적인 힘이 곧 온거의 가치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배운 용맹정진(勇猛精進)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동국에서 절치탁마(切齒擗馬)한 그 정신으로 앞으로의 세계를 여러분의 세계로 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남의 고통을 들어 주고 행복을 주는 발고여락(拔苦與樂)의 미덕을 실천하는 지성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내면이 충실한 동국인의 기상을 보여주는 사회의 정량인(精量人)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빛으로 도덕회복 앞장

위덕대 손제석 총장

졸업생 여러분, 이제 대학생 활을 마치고 사회인의 일원으로 생활을 하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인내하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의 열성을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끝이 곧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새로이 전개되는 사회속에서 그 노력과 열성은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며 인내와 노력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인내와 의지의 실천에 의해 형성되어 왔듯이,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의지와 실천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회에서 겪을 많은 문제가 어떻게 보인다고 해도 의지와 인내로 살피고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졸업생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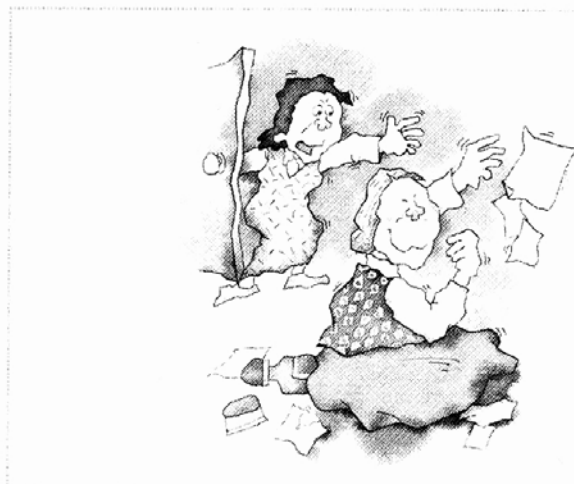
아는 자가 곧 현명한 자' 라는 말입니다. 이 사회에는 대학생 활에서 다 배우지 못한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자만이 더 많은 지혜를 가질 수 있으며 더욱 성숙한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진리를 아는 자는 영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사회의 곳곳에서 만연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불의와 비리에 영합하는 부도덕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일시적으로 묻혀질지는 몰라도 언제나 다시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동안 충실하게 진리 탐구의 대학생활을 한 졸업생 여러분은 이제 진리의 빛으로써 이 사회의 원죄와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는 지성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6회 신행수기 당선작 (천태종 총무원장상)

삼보께 귀의합니다

홍건자 -서울시강북구수유3동-

친정 어머니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도 많은 자식을 기르셨다. 아들이 6명, 나를 포함해 딸이 13명 등 모두 19남매를 길러 가르치시고 손수 결혼까지 시켰다. 그 기구한 사연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머니는 19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해 노처녀가 되었다. 이유인즉 나의 외할머니께서 병환이 깊어 장녀로서 어린 동생들을 두고 일찍 시집 갈 수가 없어서 혼기를 넘으신 것이다. 그러다 상처해서 딸이 4명, 아들이 1명 있는 지금의 아버님에게 시집와서 5남매를 기르시느라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후 어머니께서는 딸 7명과 아들 하나를 합해 모두 8명을 두게 되었다. 그 가운데 아홉 번째인 내가 딸이어서 어머니의 시어머니 즉 나의 할머니께서 씨받이를 두자고 극성이어서 딸을 많이 낳은 죄로 작은 어머니를 두어 모두 6명을 낳았으니 19남매가 되었다. 10남매 의장손 며느리가 또 9남매 자손에다 시부모까지 모셨으니 마음 고생이 어느정도였는지는 굳이 말을 안해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이준석

천수경 매일 독송하며 업장소멸 발원

고 수도도 일어 수건과 걸레를 우물에서 빨아 오다보니 청소 시간이 반나절이나 걸렸다. 청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치매가 심한 어머니 대소변 받아내다 비위가 상해서 담배를 배웠다라는 말이 생각났다. 나도 친정 어머니 대소변을 치우면서 혹 비위가 상해지나 않을까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인생이 불쌍해서 울면서 꼭 잡았다. 소를 하며 어머니도 내가 어렸을 적에 더러운 대소변을 어떻게 치우며 기르셨다고 생각하니 땀이 나는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유난히 냄새에 민감한 나였지만 지금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것이 모두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극진히 공양하고 싶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사는 영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일 불자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해낼수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께서는 개운하신지 그날밤에 아무말씀도 없이 잘 주셨다. 그 이튿날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친정 어머니를 두고 발이 떨어지지 않아 차마 집을 나올 수가 없었다. 어머니에게는 지금 당장 극진히 간호할 젊은 사람의 손이 필요했다. 당신께서 낳은 자식들도 외면하는데 그 누가 대소변을 받아 내겠는가 생각하니 가슴이 두서너게 내렸다. 나도 손뼉을 기르면서 집에서 살피는 등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아끼거나 더 키운다는 마음으로 모시고 가야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남편에게 사정 얘기를 해 동의를 얻었다. 남편도 경제 한파로 구조조정을 당

해 직장에서 퇴출 당하고 우울 증세가 심한데 다 헬압과 심장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환자였지만, 살아 생전에 어머니를 극진히 돌봐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흔쾌히 허락했다. 정말로 너무나 고맙다. 그래서 아들처럼 친정 어머니를 우리집으로 모시고 올라왔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몸도 못가누는 친정 어머니는 한 곳으로만 오래 누워계셔서 인지 욕창이 나 있었다. 그래서 좋다는 약을 다 구입해다가 정성껏 소독해 드리고 간호를 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매일 매일 기도를 드렸다. 이런 노력때문일까, 우리 집에 오신지 1주일만에 소변도 보시는 등 감각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다. 기저귀를 갈아 드리고 몸을 깨끗이 씻겨 드리며 말뚱무도 해드리니 많이 좋아지셨다. 이제는 걸어서 밖에도 나가려 하시고 말씀도 제법 많이 하신다. 기억력이 되살아나 예전 일들을 많이 기억하며 말씀하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치매증세는 계속됐다. 바느질 하신다고 가위로 온갖 천을 자르기도 이것저것 꿰매느라 온방을 다 뒀어 드렸다. 또 전화기 전선을 다 빼놓으시고 신문은 찢어서 집이 놓아 화장지로 쓰시는 등 치매 증세가 날로 심해져 갔다. 치매가 무서운 병이란 말이 많았지만 이렇게 한 인간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는 그때 처음 알았다. 그래도 어머니는 치매가 아주 곱고 잠정하게 온셈이다. 화장실까지 내 손을 잡고 걸어가시기도 하고 세수도 가끔씩 혼자 하시기도 한다.

내 밥 들도 효성이 지극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두 부부를 봉양 하느라 고생하고 있다. 새벽 6시 직장에 갔다가 야간대학 공부까지 하고 밤늦게 돌아와 피곤해 하면서도 꼭꼭 할머니 방에 들어가 할머니를 안고 뽀뽀해 드리고 사랑스럽게 해 드리니 할머니도 좋아 하신다. 말 두 딸이 고맙기 그지 없다. 다른 집 아이들은 낚세 난다고 할머니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옆에 있는 것조차 싫어 함께 밥도 먹지 않는다면 우리 딸들은 외할머니를 서로 안으려고 까지 한다. 친정 어머니를 모셔온지 1주일만에 기쁜 소식이 있었다. 큰 딸 아이가 회사에서 진급을 한 것이다. 요즘은 구조조정이니 해서 세상이 혼란스러운데 직장에서 인정받아 상도 두 번씩이나 타더니 진급까지 했다. 이웃집 노인을 하루만 잘 모셔도 3일 먹을 복을 준다는데 외할머니께 잘하니 복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시립대학에 근무하며 저녁에는 시립대 법학과에 다니면서 주경야독을 한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장학금 타려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부모까지 봉양 하느라 고생이 많다. 그래도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도 탓하지 않고 밝게 살려고 노력하니 대견하고 고맙기 그지 없다. 친정 어머니를 모셔놓고 잊지 못할 가슴 아픈 일도 생겼다. 8남매중 두 언니들이 '왜 친정 어머니를 내가 모셔 왔느냐'며 야단을 쳤다. 자기들도 남편과 아들 자식도 있고 사는 것도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몇배 나은데 무슨 속셈으로 의논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셔 왔느냐며 마음에 없는 억지를 썼다. 그말을 들으니 정말로 괴로웠다. 부처님 앞에 맹세하지만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고, 병든 어머니의 고통스런 상황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 모셔왔는데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란 말인가. '순간 선비의 눈에는 모든 것이 선비로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로만 보인다'는 무학대사의 말씀이 생각났다. 사물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업을 짓는 언니들이 안타까웠다. 나는 결코 형제 자매에게 잘했다고 공치사 들으려고 어머니를 모셔 온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나의 진실을 알겠지 하고 있지만 형제간에 의가 상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만일 내가 불제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슬픔을 현명하게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도 부처님만은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염불만회회 회원으로서 쉬지 않고 정진을 하고 있다. <천수경>을 매일 일곱 번 수지 독송하면서 참회와 업장 소멸을 발원한다. 또 게을러 지거나 나태한 마음이 들면 동산불교대학에 다닐 때 나무아미타불을 십만팔천번 사경해 받은 상패를 보며 다시 발심해 정진한다. 그리고 심한 치매로 딸자식도 몰라 보시는 어머니를 위해 발원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큰 소리로 염불하면 친정 어머니도 가끔씩 따라 하신다. 이렇게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품안에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친정 어머니를 부처님처럼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오늘도 부처님전에 굳게 다짐한다.

Advertisement for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 (Five-color shining sutra) by '운림(佛宇)체'. Includes details about the sutra's benefits, a price of 35,000 w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Korea Art Gallery.

Advertisement for '四柱秘傳' (Four Pillars Secret Transmission) by 達磨大師 (Dharma Master). A book about Buddhist teachings, priced at 35,000 won. Includes a list of contents and publisher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현대결혼연구원' (Modern Marriage Research Institute). Focuses on helping couples with marriage issues. Includes a testimonial from a woma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institute.

Advertisement for '석, 굴진 공사 전문' (Stone, Tunnel Construction Specialist). A company specializing in stone and tunnel construction. Lists services, contact info, and a list of clients.